1.글로벌 채권

* <뉴욕 채권> 미국 추수감사절 휴장

[미국]
2y 1.13% (휴장)
5y 1.83% (휴장)
10y 2.35% (휴장)
30y 3.02% (휴장)

[기타 10Y물]
영국 1.43% (-1.4bp)
독일 0.25% (-0.5bp)
프랑스 0.78% (+0.4bp)
이탈리아 2.13% (+1.4bp)
스페인 1.58% (-0.9bp)
그리스 6.79% (+0.8bp)

2.글로벌 증시

* <뉴욕 마감> 미국 추수감사절 휴장

* <유럽 마감>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이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며 소폭 상승한 채 마감

* <상하이 마감> 위안화 절하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보합으로 마감

* <도쿄 마감> 엔화 가치가 하락한 영향으로 일본 수출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 상승... 도요타 4.79%, 혼다는 3.93%, 닛산은 2.59% 주가 상승

DOW30 19083.18 (휴장)
NASDAQ 5380.68 (휴장)
S&P500 2204.72 (휴장)
NIKKEI225 18333.41 (+0.94%)
SHANGHAI 3241.74 (+0.02%)
FTSE100 6819.20 (+0.17%)
DAX30 10689.26 (+0.25%)
CAC40 4542.56 (+0.29%)

3.글로벌 환시

* 뉴욕 외환시장이 '추수감사절'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영국 런던시장에서 24일(현지시간) 미국 달러화가 강

세를 지속

위안화 기준환율이 달러당 6.90위안 돌파...위안화 가치가 기준환율에서 6.90위안을 넘어선 것은 2008년 6월 16일(6.9028위안) 이후 처음

유로/달러 1.0553 (+0.0001)
유로/엔 119.63 (+0.88)
달러/엔 113.35 (+0.84)
달러/위안 6.9085 (+0.0181)
런던 NDF 1178.00 / 1179.00원...1.85원 하락

4.글로벌 상품

* <국제 유가> 다음주 감산 실행을 논의하기 위한 석유수출국기구(OPEC) 회의를 앞두고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보합
* <국제 금값>

WTI 47.98 (+0.04%)
COMEX금 1189.30 (+0.00%)

5. 전일 국내 지표

코스피 1971.26 (-0.84%)
코스닥 592.65 (-1.27%)
원/달러 1180.10 (+0.39)
KTB 109.03 (-0.22)
LKTB 124.88 (-0.67)

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

* 국고채 금리, 상승 마감. 미 채권금리 상승에 투자심리 부진 이어져. 단기물 부담이 계속 이어졌고 장기물도 전일과 다르게 약세를 보임.

CD(91d) 1.4600% (+0.03bp)

[국고채]
1y 1.7120% (+6.20bp)
3y 1.8300% (+7.30bp)
5y 1.9650% (+7.50bp)

10y 2.1950% (+6.50bp)
20y 2.2700% (+6.00bp)
30y 2.2850% (+6.00bp)
50y 2.2720% (+6.00bp)

[통안채]
1y 1.7130% (+6.20bp)
2y 1.8300% (+7.00bp)

7. 본드 스왑 스프레드

1Y -15.80bp (+2.05bp)
2Y -23.25bp (+1.75bp)
3Y -18.50bp (+0.70bp)
5Y -25.50bp (-2.00bp)
10Y -33.75bp (-3.50bp)

8. IRS/CRS 동향

* IRS, 외인 매도 등에 따른 국채선물 약세 탓에 대폭 상승 마감. 손절물량의 영향이 큼.
* CRS 금리도 전 구간 고르게 상승.

*IRS 금리

1Y 1.5550% (+8.25bp)
2Y 1.5975% (+8.75bp)
3Y 1.6450% (+8.00bp)
5Y 1.7100% (+5.50bp)
7Y 1.7775% (+4.75bp)
10Y 1.8575% (+3.00bp)

1*2Y 4.25 (+0.50bp)
2*3Y 4.75 (-0.75bp)
2*5Y 11.25 (-3.25bp)
3*5Y 6.50 (-2.50bp)
5*7Y 6.75 (-0.75bp)
5*10Y 14.75 (-2.50bp)

*CRS 금리

1Y 1.0450% (+5.50bp)
2Y 1.0550% (+6.50bp)
3Y 1.0800% (+6.50bp)
5Y 1.1050% (+6.50bp)
7Y 1.1300% (+6.50bp)
10Y 1.1450% (+6.50bp)

9. 주요뉴스

[해외]

* 일본 내년 국채 발행액, 2009년 이후 8년 만에 최저 수준인 150조엔(약 1천575조원)대로 낮출 예정 <니혼게이자이신문>
-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책 덕분에 그간 만기가 긴 초장기물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기존 나랏빚을 갚기 위한 차환채(借換債) 발행이 줄어든 결과
- 일본은행은 국채를 대량으로 계속 사들일 방침이어서 채권시장에서는 국채를 구경하기 어려운 수급 불균형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

* 연준, 11월 FOMC에서 현행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(FFR)를 대체할 가능성 논의
- 연준 실무진, 장기적 관점에서 기준금리 및 통화정책 운용 방침 등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를 FOMC 위원들에게 보고하면서 단기금리가 빈번하게 변동하는 상황이 온다면 기준금리로 FFR이 아닌 다른 금리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개진
- 'FOMC는 대신 하루짜리 미 국채 레포(환매조건부채권) 금리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'고 설명
- 통화정책 결정권을 가진 FOMC 위원들은 당장 기준금리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견해... 장기적인 실행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결정은 지금 필요하지 않다면서 현재 프레임워크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

* 독일 경제성장 둔화세...3분기 GDP, 전분기 대비 +0.2% (전망치 +0.2%)
- 1분기 전기대비 0.7% 증가했으나 2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 또 다시 0.2% 증가에 머물러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

[국내]

* 한은, 내년 금통위 8회 축소...금융안정회의 4회 개최
-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, 1월, 2월, 4월, 5월, 7월, 8월, 10월, 11월 개최
- 거시금융안정 점검회의, 3월, 6월, 9월, 12월 개최

* 금리 급등에 여전채 발행 꽁꽁...CP로 고군분투

* 트럼프에 값 떨어진 건설채..."우량채권이 더 심해"

금일 예정 지표

'추수감사절'로 금융시장 조기 마감

일본-10월 근원 CPI(YoY) (예상:-0.4%, 이전:-0.5%)
영국-3분기 GDP(QoQ) (예상:0.5%, 이전:0.5%) / GDP(YoY) (예상:2.3%, 이전:2.3%)
미국-11월 서비스 PNI (예상:54.8, 이전:54.8)
-10월 상품수지 (예상:-59.20B, 이전:-26.08B)
한국-11월 소비자심리지수